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
	배포일자	2022년 4월 22일(금) 총 3매	
담당 부서 / 미래산업과	담 당 자	• 로봇산업팀장 송용석 ☎440-3106 • 담당자 김미영 ☎440-3108	
사진(이미지)	☐ 없음 ▣ 있음	참고자료	▣ 없음 ☐ 있음
보 도 시 점	9시 2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-(주)만도, 로봇산업 발전 위해 협력하기로

- ㈜만도 인천로봇랜드 내 연구소, 시험시설 투자 및 업무협약 체결 -

인천광역시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EV(전기차)·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㈜만도와 인천로봇랜드 내 시설 투자 및 인천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,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원장, ㈜만도 조성현 대표이사, 최성호 부사장과 송준규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이번 협약에 따르면 ㈜만도는 인천로봇랜드 내 6,600㎡~16,500㎡ 규모의 부지에 로봇·모빌리티 연구소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, 로봇 관련 기술을 인천광역시와 공동개발하게 된다.

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협력기업 유치,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㈜만도는 순찰로봇, 주차로봇 등 로봇·모빌리티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으며, 향후 스마트 물류시스템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 현재 자율차량이송로봇 기술개발 정부 연구과제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(R&D)을 통해 로봇·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.

㈜만도 조성현 대표는 "인천 로봇랜드가 국내 최고 물류허브인 인천의 강점을 배경으로,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명실상부한 로봇 산업의 메카로 진화 중" 이라며 "만도의 관련 사업 확장 측면과 협력기관 입주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장소로 판단됐다" 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"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 ㈜만도가 인천로봇랜드 투자를 결정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" 며 "인천시 전략과제인 로봇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요 증가, 저출산·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미래산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해 인천이 로봇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" 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2019년 로봇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▲인천로봇랜드의 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 개발을 통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▲로봇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▲인천형 특화로봇 육성 ▲로봇대회, 꿈나무 발굴 등 로봇문화 확산 ▲로봇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 로봇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.

시는 이를 통해 로봇산업 혁신 협력단지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

할 국내외 유망 로봇기업 및 기관 발굴과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 '21년 로보로보 등 5개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또한 같은 해에 인천형 특화로봇 실증지원,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포함 총 54개사 로봇기업 지원,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(R&D) 정부 공모사업(국비 149억 규모)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9시2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http://tv.incheon.go.kr/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